

世宗實錄地理志 姓氏條의 檢討

金 東 洙*

- | | |
|-------------------------------|--------------------|
| I. 머리말 | III. 姓氏와 邑司와의 關聯問題 |
| II. 姓氏條에 關한 諸見解와 그에 대
한 檢討 | IV. 姓氏條의 資料問題 |
| | V. 맺음말 |

I. 머리말

姓氏에 관한 연구는, 氏族自體의 淵源이나 展開過程을 살핀다는 소극적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支配層의 형성과정이나 動向, 당시 사회의 신분구조와 통치구조, 지방사회의 실태, 姓의 사회적 기능 문제 등등의 제반 양상의 해명이라는 광범한 분야와 연관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찍부터 姓氏에 관해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 왔다.¹⁾

* 全南大學校 史學科 教授

1) 姓氏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今村 嗣, 朝鮮의 姓名氏族에 關する 研究調査, 1934.

金斗憲, 朝鮮家族制度研究, 1949.

旗田 巍,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法制史研究, 10, 1960;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1972

江原正昭, “新羅末高麗初期의 豪族,” 歷史學研究, 287, 1964.

金哲堧, “新羅時代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 1, 1968; 韓國古代社會研究, 1975.

申奭鎬, “韓國姓氏의 概說,” 韓國姓氏大觀, 1971.

金光洙, “高麗太祖의 三韓功臣,” 史學志, 7, 1973.

金鴻植, “李朝における同族共同體の成立と郡縣制,” 史林, 58-5, 1975.

崔在錫, “高麗後期家族의 類型과 構成,” 韓國學報, 3, 1976.

宋俊浩, “韓國에 있어서의 家系記錄의 歷史와 그 解釋,” 歷史學報, 87, 1980.

金壽泰, “高麗本貫制度의 成立,” 震檀學報 52, 1981.

姓氏에 관한 研究에 있어 各姓氏族의 族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자료로 지목되는 것이 世宗實錄地理志이다. 世宗實錄地理志 외에 慶尙道地理志와 東國輿地勝覽등에도 姓氏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의 綜合性이나 多樣性에 있어서 단언 世宗實錄地理志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각 郡縣(州·府·郡·縣이나 屬縣·鄉·所·部曲·莊·處·驛 등을 郡縣이라는 용어로 총칭한다)의 상세한 구분에 입각하여 성씨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성씨는 상세한 姓種別로 세분되어 기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世宗實錄地理志의 姓氏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先學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專論的이던 部分的이던,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論稿는 몇 편을 들 수 있다.²⁾

그중 특히 武田幸男,³⁾ 李成茂⁴⁾, 吉田光男,⁵⁾ 李樹健,⁶⁾ 濱中昇⁷⁾ 氏들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들의 연구로서 世宗實錄地理志의 性格 및 姓氏의 구성, 性格, 이용자료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중요한 論稿는 본문에서 다시 소개될 것이다. 이 외에 관련되는 것을 든다면 金鴻植, “前揭論文,” 崔在錫, “前揭論文,”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一潮閣, 1981; 李樹健, “朝鮮朝 鄉吏의 一研究,” 嶺南大 文理大學報 3, 1974; 李佑成, “高麗末期 羅州牧 居平部曲에 대하여,” 震檀學報 29·30, 1966; 李泰鎮, “醴泉開心寺石塔記의 分析,” 歷史學報, 53·54, 1972 등이다.

3) 武田幸男, “地理志姓氏條の研究,” 朝鮮史研究會會報, 3, 1962(發表要旨): “高麗時代의 百姓,” 朝鮮學報, 28, 1963: “淨兎寺五層石塔形止記の研究 1,” 朝鮮學報, 25, 1962: “新羅의 滅亡と高麗朝의 展開,” 岩波講座 世界歷史 9, 1970.

4)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吏,” 韓國史研究, 5, 1970.

5) 吉田光男, “李朝初의 地方支配について,” 社會經濟史學, 45-4, 1979.

6) 李樹健, “土姓研究(其一),” 東洋文化, 16, 1975: “後三國時代 支配勢力의 姓實分析,” 大丘史學 10, 1976: “高麗時代 土姓研究 上,” 아세아학보, 12, 1976: “高麗前期 土姓研究,” 大丘史學, 14, 1978: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79, “高麗後期 土姓研究,” 東洋文化, 20·21合, 1981. 氏는 이상의 諸論稿를 종합하여 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로 출판하였다. 그런데 이 저서를 발간하면서 앞의 論文들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氏의 견해를 參考함에는 이 저서의 내용을 擇하였다.

7) 濱中昇, “世宗實錄地理志姓氏條의 基礎的考察,” 東洋史研究, 43-2, 1984.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姓種의 개념이나 지리지의 성격, 姓氏기재의 대상 등에 대해 조금씩 다른 견해가 표명되고 있다(2章 참조). 이 내용들은 앞에 들었던 성씨연구와 관련되는 제분야 연구의 기초적 前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뚜렷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世宗實錄地理志 姓氏條의 성격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반 연구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上記諸氏의 견해들을 검토해 보고, 지리지 성씨조의 이해에 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의 해명에는 반드시 연관되는 제문제——高麗나 朝鮮時代의 身分構造, 郡縣制度, 郡縣制의 정비과정, 姓氏에 대한 認識觀念등——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筆者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이와 같은 考察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본고는 姓氏와 地理志의 理解에 관한 假說의 提案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後日을 기약한다는 것으로 변명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姓氏條에 관한 諸見解와 그에 대한 檢討

世宗實錄地理志의 姓氏條에 관한 많은 研究는 問題意識이나 研究의 方法, 考察의 대상등이 한결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 견해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여 본다는 것은 자못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는 하나, 姓氏條의 성격이나 姓種의 개념, 姓氏기록의 원칙 등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諸家의 견해를 소개하여 보고자 한다. 세세한 점에 있어서는 각기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아 다음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가) 土姓이나 續姓·來姓·亡姓은 모두 土姓에서 分化·派生된 것이지만 그 중 土姓은 土族姓, 續姓은 鄉吏의 姓을 나타낸다는 견해.

나) 土姓이나 續姓·來姓·亡姓은 가)의 견해와 같이 土姓에서 分化 派

생된 것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邑司 구성원의 姓이라는 견해.

다) 地理志의 姓氏는 그 이용자료의 作成時期에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을 본관으로 한 姓氏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 이 경우 신분 문제나, 邑司構成員의 성씨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들 제견해들도 모두 지리지의 姓種구분이, 지리지가 이용한 자료, 곧 古籍과 今關에의 記載의 有無에 의해 되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土姓은 古籍과 今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성씨이며, 亡姓은 古籍에는 있지만 今關에는 없는 성씨, 來姓은 古籍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土着의 姓氏는 아니고, 他所로부터 이주한 성씨, 續姓은 古籍에는 없고 今關에만 나타나는 성씨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世宗實錄地理志 자체의 姓種에 대한 註記, 곧

A) ① 廣州土姓三……加屬姓三……(此六姓 據古籍及今道關錄之 其云加屬者 古籍所書也 後皆倣此) (世宗實錄 卷 148, 地理志 京畿道 廣州牧)

② 屬縣 迷原庄 續姓一 威(右威氏 古籍所無 今據本道關續錄 後凡言續姓者倣此 上同, 京畿道 楊根郡)

라 하는 기록에 주장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용자료의 기재유무에서 姓種 구분의 기준이 나온다고 보면서도 가)처럼 姓은 그 자체 신분적 차이가 있어 土姓은 土族姓이고 續姓은 鄉吏姓이라고 보는 견해와 나)처럼 郡縣의 等級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그 자체가 차별이 분명한 신분성은 아니고, 邑司를 구성하고 있는 郡縣의 支配集團의 姓氏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다)처럼 신분문제나 邑司구성문제와는 연관시키지 않고 이용자료의 記載時點의 문제와만 연관시켜 보는 견해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좀더 소상히 살펴보자.

가)의 견해는 李成茂氏의 주장이다. 氏는 土姓과 續姓의 구분이 古籍에의 기재유무에 연관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보다는 土族姓과 鄉吏姓을 나타내는 姓種이라고 한다.⁸⁾ 氏의 이러한 견해는 그 후 몇 분들의 연

구에서 그대로 채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⁹⁾

그렇지만 이 견해에 대한 의문은 鄭杜熙氏와 吉田光男氏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鄭杜熙氏는 續姓을 鄉吏姓으로 보는 것에 대해, 世宗實錄地理志에 續姓이 나타나는 빈도와 그 중에서도 鄉吏라고 明記된 것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續姓 중 鄉吏라고 明記된 것은 전속성의 76%에 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로서, 慶尙道地理志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世宗實錄地理志에 이르러 처음 나타나는 續姓은 그 대부분이 朝鮮初期의 鄉吏姓이었음을 말하여 주기도 하지만, 續姓 중에 鄉吏라는 註記가 없는 것의 신분은 어떠한지, 또 그것과 鄉吏인 續姓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續姓이 이때 성립한 鄉吏姓이라고 하는主張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였다.¹⁰⁾

吉田光男氏는 朝鮮時代 鄉吏의 태반이 土姓에 속하고 있고, 또 續姓의 土族도 확인되는 바라 하여 土姓土族姓, 續姓鄉吏姓이라는 것을 부정하였다.¹¹⁾ 마찬가지로 李樹健氏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李樹健氏나 吉田光男氏 등의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이 주장은 그 타당성이 높지 않음이 밝혀졌다 할 것이다.

나)의 견해는, 武田幸男, 吉田光男, 李樹健氏 등의 연구에서 表明된 주장이다. 물론 이들의 견해는 細部에 있어 다르다. 다만 土姓=土族姓, 續姓=鄉吏姓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地理志의 諸姓種은 모두 邑司를 구성한 姓氏集團의 姓이라고 보는 점에서 공통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주로 파악하여 묶어둔 것이다. 이들의 견해를 다시 세분하여 소개하여 보면 다

8) 李成茂, 前掲論文, pp. 74~76.

9) 韓祐勗, “兩班官僚國家의 成立 概要,” 韓國史, 9, (國史編纂委員會) 1974. p. 8.

李泰鎮, “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 震檀學報, 34, 1972. p. 14.

朴宗基, “部曲制 分布에 관한 기초적 정리,” 韓國學論叢, 7, (國民大) 1985. p. 64

10) 鄭杜熙, “朝鮮初期地理志의 編纂,” 歷史學報, 69, 1976. p. 93.

11) 吉田光男, “前掲論文.”

12)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p. 36. p. 109.

음과 같다.

① 武田幸男氏は 처음 姓種의 차이를 단지 지리지가 기초한 文書의 종류의 新舊에 의하여 생겼다고 보았다. 곧 지리지의 姓種은 어느 지역의 土着의 시간적 선후로서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또한 實錄地理志에 기록된 성씨는 高麗 이래의 기본적 사회집단인 성씨집단을 反映한다는 논거에 기초하므로써, 身分의 구별은, 土姓을 구성하는 두요소, 즉 人吏姓과 百姓姓에만 나타나는 것이고, 土姓이나 亡姓·來姓·續姓 그 자체는 신분구분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¹³⁾

그러다가 氏は 후일 이 논리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高麗 이래의 기본적 사회 집단인 姓氏集團이 邑司를 구성한다고 하여 이 姓氏들은 邑司構成員의 姓이라고 하였다. 모든 姓이 邑司의 姓이라고 明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邑司는 이 姓氏集團으로서 구성되었다고 함으로서 결국 邑司構成員의 姓이라고 본 것이다.¹⁴⁾

氏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함에 있어 별다른 논증은 하지 않고 있다. 氏의 邑司構成員의 姓이라는 견해는 이후 吉田光男氏나 李樹健氏에 의해 姓氏條研究의 기본 전제로서 채택되어 더욱 구체화 되었다.

② 吉田光男氏は, 李成茂氏의 견해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武田幸男氏의 견해를 기본으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世宗實錄地理志의 내용은 鮮初의 狀況을 反映한 것이라는 時代性을 前提로 하여 土姓과 續姓 등의 구분은 關에의 記載의 有無에 의한 것이지만, 世宗實錄地理志의 諸姓種은 모두 鮮初의 鄉吏姓이라는 대담한 견해를 내세웠다. 이 같은 주장의 논거로써 氏는 여러 자료에서 檢出되는 本貫의 기록과 地理志의 해당 지역 성씨조와의 相違를 지적하여 邑司구성이 성씨 기재의 기본 전제라 하고, 縣과 邑司의 치폐, 그리고 鄉吏의 移屬관계가 불

13) 武田幸男, “高麗時代の百姓,” p. 9 및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の研究(I),” p. 36.

14) “新羅の滅亡と高麗朝の展開,” p. 493.

可分離의 관계에 있다는 것, 또 地理志에 姓氏가 登載되지 않은 몇 개의 지역이 있는데 이들 지역은 鄉吏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邑司가 없었다고 하여 姓氏登載의 기본은 邑司를 구성한 鄉吏들의 姓이라는 것을 論證하였다.

그렇지만 氏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몇가지 점에서 의문이 떠오른다. 氏는 鄉吏가 없는 지역에는 土官이나 典吏·京衙前·軍士·閑良 등등이 鄉役을 대신 했고, 따라서 이 지역에는 姓氏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다.¹⁵⁾ 그런데 역시 鄉吏가 없었던¹⁶⁾ 平安道の 義州·江界·寧邊에는 姓氏가 기록되어 있다.¹⁷⁾ 또 京衙前이 鄉役을 부담한 漢城府와 開城留後司에도 姓氏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했지만, 世宗實錄地理志 卷 148, 舊都開城留後司에는 「土姓五, 高·金·王·康·田 來接姓一, 李」라 하여 土姓과 來接姓이 나오고 있다. 漢城府의 경우, 世宗實錄地理志엔 漢城府項이 없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1 漢城府엔

姓氏 本府 韓·趙·閔·申·艾(村), 朴·洪·夫·崔·鄭(並來)

라 하여 姓種이 보이는 바 世宗實錄 卷 148 地理志 楊州都護府條를 보면

15) 世宗實錄地理志에 姓氏記載를 결한 郡縣으로 吉田光男氏가 제시한 군현은 京都漢城府·舊都開城留後司·全羅道濟州島의 旌義縣·大靜縣·平安道の 平壤府·咸吉道の 咸興府·慶原都護府·甲山郡·鏡城郡·會寧都護府·穩城都護府·慶興都護府 등이다. (『前揭論文』, p.437~438)

16) 吉田光男, “上揭論文,” p.438.

17) 吉田光男氏는 寧邊에는 姓氏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지역에는 鄉吏의 존재가 추측된다고 하여, 寧邊의 土官組織은 西班牙으로 東班이 없고, 또 그 규모도 작기 때문에 土官만이 鄉役을 부담하지 않고 鄉吏도 併存했을 것으로 보았다(『上同論文』, p.449의 註 62). 義州에도 世宗 14년 4월에 역시 西班牙의 土官職만이 설치되기 때문에(『世宗實錄』 卷 56, 14年 4月 辛丑) 氏의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江界는, 世宗 24年の 議政府 上啓中에 江界府土官 無東班 與他官土官不同 國家慰悅之方未周 令吏曹量數設置 以慰民生(『世宗實錄』 卷 97, 24年 9月 戊寅)

라 하여 西班牙土官은 이미 존재하였지만 東班土官을 또 加置토록 함으로써 東西班의 土官職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姓氏가 記錄되어 있는 것을 說明할 수 없게 된다.

18) 吉田光男, 上同論文, p.438.

土姓四 韓·趙·閔·申 來姓五 威(楊根來) 朴(春川來) 洪(南陽來) 崔(水原來) 夫(果川來) 亡姓二 鄭·艾

라고 東國輿地勝覽의 漢城府 姓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 또 동국여지승람 권 11 楊州都護府에도

漢陽：韓·趙·閔·申

來：威·朴·洪·夫·崔·鄭

村：艾

라 나오고 있다. 이는 곧 漢城의 姓氏가 世宗實錄地理志에 楊州都護府條에 포함되어 기록되었다고 보인다. 漢城은 高麗時代に 楊州로 불렸었고 忠烈王 34년에 漢陽府로 개칭되었다가,¹⁹⁾ 朝鮮太祖 3년에 國都가 되면서 楊州의 府治가 東村 太洞里로 옮겨가 漢城과 楊州로分離되었다.²⁰⁾ 이에서 보건대 漢城府는 太祖 3년에 楊州에서 分離되었지만 그 姓氏는 楊州의 本縣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濟州의 경우, 氏는 鄉吏가 있긴 하지만, 일반 행정사무는 典吏가 맡음으로서 旌義·大靜縣에 姓氏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濟州牧 자체에는 성씨가 기재되어 있다.²¹⁾

다음 黃海道 海安縣의 移屬관계를 살펴보면, 邑司, 곧 鄉吏의 존재여부에 의해 姓氏가 기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하는데, 海安縣이 속한 松禾縣에 합속된 永寧縣의 경우 전혀 縣目이나 姓氏가 表出되지 않고 있다.²²⁾ 이 경우 永寧縣에는 원래부터 邑司가 없었을까? 東國輿地勝覽 卷

19) 東國輿地勝覽 卷11 漢城府

「京都漢城府 本高句麗南平壤城…高麗初改爲楊州…忠烈王三十四年戊申 改爲漢陽府…太祖康獻大王三年 甲戌十月甲午定都于此 改爲漢城府」

20) 上同, 楊州都護府

「楊州本高句麗南平壤城…高麗改爲楊州…忠烈王三十四年戊申 改爲漢陽府 本朝太祖三年甲戌 定都于漢陽 移府治于東太洞里 後降爲知楊州事…」

21) 濟州牧에는 土姓으로서 高·梁·夫 등이 기재되어 있다.

22) 永寧縣은 본래 高句麗 熊閑伊로 고려때 永寧으로 개칭되었다. 顯宗 9년(1018)에 豐州任內에 속하였다가 후일 信川에 속하였으며 朝鮮 太祖 5년(1396)에

43 松禾縣의 姓氏에 永寧; 陣·田·崔·康·任이라고 나옴을 볼 때 邑司 組織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아 반드시 鄉吏가 없고(곧 邑司가 없고) 대신에 鄉役을 부담하는 다른 제종이 있는 지역에는 姓氏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절대적 타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²³⁾ 또한 氏의 論證 과정에서 邑司의 존재상정을 위해 중요하게 제시된 本貫기록과 地理志의 해당지역 성씨와의 상위문제는, 姓과 本貫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망된다는 견해²⁴⁾를 참조하여 볼 때, 지리지에 성씨가 없다고 해서 邑司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결정적 논거로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이상 吉田光男氏의 주장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여 보았거니와, 實錄地理志의 姓氏는 모두 邑司를 구성한 鄉吏의 姓이며, 姓種구분은, 邑司의 郡縣別 등급과 資料 작성의 시간적 선후관계로서 성립되었다는 吉田光男氏의 견해는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할 수 있다.

③ 李樹健氏는 지리지의 姓氏에 관한 정력적이고도 綜合的인 연구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姓氏에 관한 한 가장 상세하고도 精微한 수준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氏의 연구에 의하여 성씨문제가 거의 해명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氏의 論理도 吉田光男氏와 같이 世宗實錄地理志 所載 각읍 성씨는 麗初이래 그 邑司를 구성하였던 鄉吏의 성씨를 대상으로 기록하였다고 한다.²⁵⁾ 다만 吉田光男氏와 다

嘉禾에 이속되었고, 太宗 8년(1408)에 혁파되어 直村이 되었다. 嘉禾縣은 太宗 8년에 靑松縣과 併合하여 松禾縣이 되었다. (世宗實錄 卷 152, 地理志 黃海道松禾縣)

23) 濱中昇도 일부 郡縣에 성씨가 기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鄉吏의 有無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며, 漢城府나 開城留後司, 平壤府에 성씨가 재가 없는 것은 아마도 朝鮮에 들어와 이들 지역을 本貫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원칙이 정해진 것에서이지 않은가, 또 濟州島의 2邑 및 咸鏡道의 6邑은 麗末鮮初에 置邑되어 古籍에 기재된 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있다. (前揭論文, p.98~99의 註 22)

24)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pp.386~394.

25)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p.7.

른 점이 있다면, 吉田光男이 世宗實錄地理志의 성씨를 기본적으로 鮮初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鮮初라는 一定時點의 鄉吏集團의 姓이라고 한데 비해, 李樹健氏는 高麗初期——대체로 太祖 23년경이라함——의 邑司構成의 鄉吏를 대상으로 土姓分定을 한 이후, 각 군현마다 邑司를 중심으로 盤根錯節되어 있던 土姓이 上京從仕·流移·消滅등의 과정을 밟아 지역적 이동과 신분적 분화를 계속하므로써 亡姓·來姓·入鎮姓·續姓등이 생기고 다시 그 내부에서 上京從仕하여 貴族과 官僚로 성장한 土姓이 있는가 하면 在地吏族도 있고 또한 사회적 변동과 계층분화에 따라 良人 또는 賤民으로 전락되기도 하였다고 본 것이다.

吉田光男氏처럼 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된 모든 姓種이 朝鮮時代의 邑司構成員인 鄉吏姓이라고만 볼 경우에 제기되는 여러 의문이 李樹健氏의 論稿에 의해 거의 해명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李樹健氏의 見解는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본장에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邑司構成과 姓氏와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보충설명을 3章에서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다)의 견해는 濱中昇氏의 주장이다. 氏는 世宗實錄地理志의 姓氏條를 전 면에서 統一的으로 검토한 논문은 이제껏 없었기 때문에, 상이한 주장들이 簇出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여 地理志 姓氏條를 살피기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資料의 성격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지리지의 자료는 古籍과 關의 양종으로서 古籍은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까지의 약 100여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關은 慶尙道地理志의 撰成 이후 同地理志의 不備를 보완하기 위해 각도의 감사가 조사하여 올린 보고서로서 世宗代 당시의 現存 姓氏를 기록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써 世宗實錄地理志의 성씨는 당시에 존재한 모든 성씨가 빠짐없이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으며, 姓氏는 그 지역을 본관지로 하는 사람들의 성씨를 기재한 것이라 하였다. 氏가 이처럼 규정한 資料의 성격에

대해 필자는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4章에서 설명하여 보고자 하지만, 지리지에 기재된 성씨가 그 지역을 본관으로 한 사람들의 성이라는 주장도 역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리지에 기재된 어느 지역의 성씨와 그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姓氏에 相違가 꽤 있다는 것은 이미 吉田光男氏의 論稿에서 제시되어 있다.²⁶⁾ 그런데 이 사례들은 고려시대의 사실이므로, 濱中昇氏는 古籍作成 이전에 그 지역에서 流出되었거나, 또는 古籍作成 후에 他地에서 流入해 들어와 본관을 칭했지만 지리지에는 그 성씨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世宗實錄地理志는 世宗代의 關을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하여 작성된 것이며 따라서 성씨는 당대에 존재했던 성씨라는 것이 氏의 주장이므로 이 문제는 朝鮮初期의 人物과 그의 居住地, 또는 本貫등이 지리지와 맞지 않는 경우들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氏의 주장이 타당치 않음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地理志의 姓氏條와 該地域 居住人・本貫人과 일치하지 않는 事例

地	域	職	役	姓	名	典	據
忠	州	船	軍	李	龍	世宗(實錄) 19. 5(년) 1(월) 甲午	
槐	山	申	明色	崔	普	太宗 34. 17. 11. 戊寅	
淸	州	前	敎導	姜	淑 藝	世宗 104. 26. 4. 癸己	
天	安	前	麒麟道驛丞	秦	元 達	世宗 63. 16. 2. 辛亥	
文	義	前	別將	田	慶 生	太宗 25. 13. 2. 丙辰	
全	義	별	시위	趙	瑛	세종 52. 13. 5. 戊寅	
全	義	前	署令	金	四 知	대조 3. 4. 9. 丁未	
溫	陽	前	중앙장	文	乙 景	세종 106. 26. 9. 乙丑	
牙	山	學	生	孔	都 知	대조 8. 4. 9. 丁未	
永	同	茶	男別監	鄭	韶	세종 63. 16. 2. 辛亥	
懷	仁	백	성	金	石 老	세종 85. 21. 5. 甲寅	
懷	仁	백	성	金	衆 斗	"	
黃	澗	安	定잡무	朴	東 植	세종 124. 31. 6. 庚申	

26) 吉田光男, “前掲論文.” p.431의 表 參照.

公州	前敎導	林道	세종 42. 10. 12. 丙戌
"	前判撫山縣事	林華威	세종 7. 2. 1. 庚申
林川	백성	黃所乙萬	세종 54. 13. 11. 乙酉
"	使臣	朱允端	태종 5. 3. 5. 병인
藍浦	郎將	崔澤	세종 115. 28. 12. 辛丑
鴻山	前司正	卓熙正	세종 64. 16. 4. 癸酉
恩津	船軍	文成奇	세종 28. 7. 4. 乙丑
(現恩津)	"	曹德生	세종 33. 8. 8. 辛未
連山	及第	金問	
石城	船軍	文仲生	세종 50. 12. 12. 甲戌
扶餘	副司正	康安壽	태종 17. 9. 1. 丁卯
州任內	前郎將	權至	태종 36. 14. 8. 乙巳
洪新平	小監	沈仁富	세종 7. 2. 1. 庚申
汚川	전교수관	姜齊老	세종 77. 19. 6. 壬午
美	船軍	林上左	세종 7. 20. 1. 庚申
"	幼學	鄭安義	"
"	전별장	林雨	"
"	幼學	鄭孝新	"
德山	船軍	張小生	"
青陽	부사정	魏忠良	세종 84. 21. 윤 2. 丙申
"	백성	崔小古未	세종 88. 22. 2. 丁卯
"	"	朴升通	"
"	"	河莫同	"
保寧	"	朴同良	태종 31. 16. 5. 乙酉
大興	(황회사위)	徐達	세종 36. 9. 6. 戊寅
"	學生	金順	세종 42. 10. 10. 丙午
慶州	茶房別監	余伯燦	세종 42. 10. 10. 丙午
彦陽	백성	孔德萬	세종 6. 원 11. 丁巳
迎日	寧城君	吳思忠	태종 11. 6. 2. 辛未
"	前提控	李登	세종 7. 2. 1. 丙寅
安東	前散員	俞天桂	태종 25. 13. 2. 丙辰
寧海	전현감	柳囿	세종 87. 21. 10. 庚寅
永川	前知大丘郡事	鄭暹	세종 29. 7. 9. 丁未
仁同	騎船軍	朴桂	세종 4. 원 6. 辛卯
尙州	奉常直長 成均 박사	嚴幹	세종 45. 11. 9. 丁卯

善	山	學 生	全 益 修	세종 7. 2. 1. 丙寅
陝	川	前長興軍副使	張 友 良	"
威	昌	火 著	梁 自 山	태종 34. 17. 10. 癸未
"	"	前權務	朴 希 俊	세종 7. 2. 1. 丙寅
"	"	幼 學	申 孝 良	"
晉	州	副司直	陳 自 完	세종 84. 21. 3. 甲戌
晉	陽	좌사간	崔 卜 麟	태종 26. 13. 2. 壬申
金	海	前錄事	尹 弘 道	세종 7. 2. 1. 丙寅
威	陽	前驛丞	鄭 寅	태종 25. 13. 2. 丙辰
固	城	前保寧縣監	鄭 菑	세종 68. 17. 4. 丁巳
泗	川	白 丁	朴 文	세종 60. 15. 6. 甲申
河	東	船 匠	金 莫 同	세종 50. 12. 10. 庚辰
"	"	補充軍	宋 若 老	"
"	"	船 匠	吳 富 令	세종 50. 12. 10. 庚辰
"	"	水 軍	金 德 麟	세종 22. 5. 11. 乙亥
漆	原	縣 人	陸 希 雲	태조 8. 4. 7. 丙子
安	陰	散 員	沈 腆	세종 7. 2. 1. 庚申
密	陽	관찰사	禹 均	태종 34. 17. 10. 丙戌
全	州	보충군	楊 海	세종 26. 6. 11. 壬辰
錦	山	副 正	林 英 順	세종 7. 2. 1. 庚申
金	堤	전완산부윤	韓 答	세종 20. 10. 11. 癸酉
"	"	前教授官	鄭 坤	세종 7. 2. 1. 庚申
"	"	예빈주부	崔 頤	세종 124. 31. 6. 庚午
"	"	전산원	崔 得 林	태조 8. 4. 9. 丁未
井	邑	前別將	丁 乙 孫	세종 26. 6. 12. 丁未
"	"	散 員	陳 慶	세종 7. 2. 1. 庚申
高	山	鄉校生徒	池 活	세종 10. 2. 10. 癸丑
礪	山	船 軍	朴 亡 達	세종 33. 8. 8. 辛未
羅	州	前僉知	廉 怡	세종 47. 12. 3. 丙寅
威	平	船 軍	崔 成 札	세종 15. 4. 2. 乙卯
南	平	將 校	吳 天	세종 72. 18. 6. 甲辰
務	安	生 員	金 生 禹	세종 7. 2. 1. 庚申
高	敵	船 軍	朱 安 道	태종 30. 15. 11. 甲午
興	德	生 員	李 仲 瞻	세종 65. 16. 8. 戊辰
南	原	前知郡事	金 叔 甫	세종 81. 20. 6. 己亥
鎮	安	學 生	張 乙 富	세종 49. 12. 9. 丙辰
長	興	散 員	金 乙 賞	동문선 76. 中寧山臺浦城記

"	令同正	張龍世	"
"	"	魏宜	"
"	"	姜仁德	"
潭陽	學生	崔有龍	세종 42. 10. 10. 丙午
順天	검교 한성운	趙瑜	태종 32. 16. 9. 壬寅
光州	別侍衛	玄季仁	태종 24. 12. 11. 乙丑
"	右司諫	玄孟仁	"
"	別將	洪瑛	세종 7. 2. 1. 丙寅
樂安	양민	徐義	세종 25. 6. 9. 己卯
高興	船軍	裴宜	세종 65. 16. 9. 丙戌
綾城	校生	梁淮	세종 124. 31. 6. 庚午

※ 이 表는, 世宗代까지를 下限으로 하면서 忠淸·慶尙·全羅의 三道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표 1〉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職役은 매우 다양하다. 船軍이나 百姓 등으로 표현된 良人이하의 경우, 혹 그 지역에 거주한다 하여도 본관을 부여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官人階層의 경우는 本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이 〈표 1〉에서 보듯이 姓氏와 居住地 또는 本의 불일치사례는 매우 많은 것이다. 따라서 濱中昇氏의 주장은 실증적 기반을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世宗實錄地理志의 姓氏條는 해당지역의 居住人의 성씨를 集成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다. 또 本貫과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이 점에서 지리지 성씨조의 기재에는 本貫이나 居住地라는 기준과는 다른 어떤 基準에 입각하였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이를 李樹健氏 등은 邑司構成員의 姓이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Ⅲ. 姓氏와 邑司와의 관련문제

世宗實錄地理志에 記載된 성씨는 邑司構成員의 姓일 것이다 라는 것이 姓氏에 관한 諸研究에서 主流를 점한 견해를 앞에서 살펴보았다. 사실 여러 가지의 資料를 검토해 보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 특히 어

는 지역의 姓氏와 그 지역의 鄉吏의 姓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인다. 이 점은 이미 李樹健氏가 표로서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²⁷⁾ 氏가 작성 제시한 表로서도 姓氏와 해읍 향리와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만 이에 덧붙여 朝鮮初期實錄에 나타나는 鄉吏와 그 지역의 姓氏를 나타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朝鮮初期 鄉吏의 居住地와 地理志 기록과의 對比

郡縣名	職名	姓 名	典 據	地理志의 姓氏
廣州	戶長	李 勤	太祖 8. 4년 9월, 丁未	土 姓
"	"	李 問	世宗 67. 17. 1. 丁亥	"
衿川	"	莊 美	" 54. 13. 10. 己未	"
楊州	"	韓 原	" 67. 17. 1. 丁亥	"
"	"	申 立	" 53. 13. 7. 乙亥	"
富平	鄉吏	金 雨	" 83. 20. 11. 癸巳	"
忠州	衙前	安 慶 行	" 106. 26. 10. 戊辰	"
淸州	戶長	朴 光	" 23. 6. 3. 戊寅	背音所續姓
"	"	孫 禧	太祖 8. 4. 9. 丁未	土 姓
新昌	衙前	表 芸 平	世宗 36. 9. 6. 戊寅	"
牙山	戶長	全 謹	" 23. 6. 3. 丁亥	"
報恩	"	金 厚	" 34. 8. 10. 乙丑	"
公州	記官	李 根	" 28. 7. 5. 己卯	"
瑞山	戶長	柳 訥	" 23. 6. 3. 丁亥	"
大興	"	李 成 萬	" 3. 2. 1. 庚寅	"
慶州	衙前	崔 渚	" 121. 30. 8. 甲寅	"
"	戶長	金 益	" 8. 2. 5. 丙戌	"
梁州	"	鄭 青	太宗 19. 10. 4. 丁巳	"
蔚山	衙前	李藝·李陶·朴焉	太祖 13. 7. 1. 甲戌	"
興海	戶長	崔 可 海	太祖 29. 15. 2. 庚寅	"
寧海	戶長	黃 丹 儒	" 28. 14. 11. 己未	"
比安	衙前	林 抹	" 32. 16. 7. 壬寅	亡部曲新平續姓
開寧	"	林 茂	世宗 76. 19. 1. 甲午	土 姓
軍威	"	徐 習	" 105. 26. 윤 7. 辛丑	

27) 李樹健, 前掲書. p.7~8의 表 <1~3>, <1~4> 參照.

晉州	〃	鄭 習	〃 8. 2. 5. 甲戌	〃
固城	吏	南 琴	定宗 2. 元. 7. 戊寅	〃
居昌	衙前	劉 習	太宗 19. 10. 4. 丁巳	〃
密陽	戶長	朴 良	〃 17. 9. 윤 4. 壬戌	〃
古阜	〃	李 諒	世宗 16. 4. 4. 丁未	〃
南原	〃	梁 佃	〃 42. 10. 10. 丙午	〃
長興	〃	申 奉 閑	東文選 76. 中寧山 皇甫城記	〃
順天	〃	林 頤	世宗 25. 6. 9. 己卯	富有續姓
樂安	鄉吏	李 詩	世祖 3. 2. 2. 庚戌	土 姓
高興	戶長	申興·申潔	成宗 237. 21. 2. 甲辰	〃
和順	〃	金 仁 發	世宗 84. 21. 3. 壬申	續 姓
玉果	〃	趙 豆 彥	〃 84. 21. 2. 癸亥	土 姓
鳳山	衙前	金 堅	〃 91. 22. 12. 辛未	外 姓
〃	記官	李 峻	〃 116. 29. 5. 戊申	土 姓
原州	鄉吏	安 智	〃 49. 12. 8. 己丑	〃
橫川	縣吏	黃 尙 中	太宗 28. 14. 10. 戊寅	〃
伊川	戶長	崔 吉	〃 17. 9. 6. 壬辰	〃
定州	吏	金 玉 謙	〃 19. 10. 2. 壬戌	入鎮姓(信州來)
安邊	戶長	崔 基 烈	太祖實錄總書	土 姓
慈州	〃	金 良 義	太宗 22. 6. 12. 庚子	入 鎮 姓

〈表 2〉에서 들어난 것처럼 地理志에 기재된 姓氏가 邑司構成員의 姓氏라 하는 점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의 제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姓氏가 邑司構成員의 姓이라고 할 때,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곧 地理志의 姓氏=邑司構成員의 姓이라고 하지만, 邑司를 구성하는 계층의 신분적 범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읍사구성원의 신분의 범위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제연구가 이 점에 대해 明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郡縣區劃 당초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郡縣의 支配를 담당한 계층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들 계층은 鄉職이나 鄉吏職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在京從仕하는 士族과 在地居住하는 吏族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²⁸⁾

그런데 高麗時代의 良人이나 또는 賤民이라 할 계층이 姓名과 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姓과 本이 해당지역의 姓氏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 邑司構成員에 良人이나 또는 賤民階層까지 포함되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남게 해 준다. 다음 史料들을 검토해 보자.

B①…求訪孝子順孫 義夫節婦 有全州求禮縣民孫順興 其母病死 畫像奉祀 三日一詣墳墓 饗之如生 雲梯縣祇佛驛民車達兄弟三人…西都牧丹里朴光廉…南海狼山島民能宜女咸富…慶州延日縣民鄭康俊女字伊 及京城宋興坊崔氏女……順興等五人擬授官階 以揚孝道…(高麗史 卷 3 世家 成宗 9 年)

② 朴球 蔚州屬部曲人 其生富商 球籍其資 以饒財稱 元宗時爲上將軍…(高麗史卷 104 列傳 金方慶附朴球)

③ 李義旼慶州人 父善以販鹽鬻飾爲業 母延日縣玉靈寺婢也(高麗史 卷 128. 列傳 李義旼傳)

○裴佺 興海郡人 其母宮婢 佺爲忠惠嬖幸(高麗史 卷 124, 列傳, 裴佺傳)

이상의 事例들은 良人이나 商人·奴들이 姓과 本을 가지고 있으며, 姓과 本이 해당지역의 姓氏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다.²⁹⁾

28) 金鍾國, “高麗時代의 鄉吏について,” 朝鮮學報, 25, 1962 : 武田幸男, “新羅의 滅亡と高麗朝の展開,” 氏は 淸州의 例를 들어 州司의 구성은 몇명의 堂大等を 頂點으로 하여 州姓과 村姓 모두에서 邑吏가 선출되어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곧 邑吏組織=邑司로서 邑은 村姓을 포함한 전 성씨집단의 정치적 연합체로서 邑司는 그들 성씨집단을 선출기반으로 하고 邑吏의 長官인 戶長이 邑을 대표했던 것이라고 한다. 氏는 邑司참여의 범위를 州姓·村姓 모두라고 봄으로서 결국 지리지에 기재된 성씨는 邑司構成的 姓이라고 한 것이다. 淸州 지역에는 州姓·村姓 16개성이지만, 龍頭寺幢竿記에서 확인된 성은 4~5姓이다. 그러나 淨兜寺五層石塔形止記의 分析結果를 참조하면 모두 참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邑司構成的 신분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吏集團으로 보는 것은 확실하다(p. 493). 한편, 新羅下代의 地方官司를 다룬 論文에서는, 地方官司가 中央에서 파견된 地方官을 중심으로 하고 村主와 軍師·所內使·內視令등의 吏職者, 그리고 大匠등의 특수직임을 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金周成, “新羅下代의 地方官司와 村主,” 韓國史研究, 41, 1983, pp. 79~80).

29) 이의 工匠의 경우, 成宗 12 年(993)에 만들어진 淳化四年銘의 도자기에 「淳化四年癸巳 太廟第一室享器匠 崔吉會造」라 하여 工匠 崔吉會의 姓名이 보이고 있다(高麗陶瓷, 梨花女大博物館, 1981). 또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에는 「鐵匠中原府人喬淵」(朝鮮金石總覽, 上, p.134)라 하여 鐵匠이 中原府人으로

史料 B①의 孫順興은 求禮土姓으로, 鄭康俊은 延日村姓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良人身分으로서 파악되고 있다.³⁰⁾ 그러나 이들이 과연 良人이었던지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縣民이라는 表現만으로 良人이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충분치 못한 것이다. 또한 史料 B②의 朴球는 部曲人으로서 商人인데, 사실 商人이 하나의 신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다.³¹⁾ B③의 奴身分이라는 경우 史料에 보이는 李義政·裴佺 등이 과연 奴婢 신분인지 여전히 더욱 의심스러운 바이다.³²⁾

결국 위의 事例들은 邑司構成의 범위에 良人·賤民階層까지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기왕의 견해처럼 邑司構成은 地方郡縣의 支配集團—吏職階層—으로 이해하는 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한편, 위에서 든 下層民의 경우와는 반대로 상당한 高位職에 있는 人物

나타나고 있다. 姓名이나 본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 쪽은 본이, 한 쪽은 姓이 脫落되어 同一한 事例로 제시하기 어려움으로 事例引用에서 제외 하였다.

- 30) 洪承基, “高麗時代 私奴婢의 法制上 地位,” 韓國學報, 12, 1978. p.33의 註 6에서 孫順興·朴光廉·鄭康俊·崔氏 등은 일반 良人農民으로 이해되며, 能宜의 경우는 애매하다 하였다.
- 31) 許興祖氏는 〈高麗社會史研究〉에서 戶籍을 통하여 신분의 이동현상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서 보면 祖·父·子의 경우에 신분의 이동이 매우 심한 상태로 나타나 고려시대의 신분의 세습과 이동여부가 어떠했는지 의문을 제기 시켜 준다.
- 32) 洪承基氏는 이들을 奴의 신분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氏는 公奴婢의 경우, 姓·本이 있는 몇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公奴婢의 발생과정에서 살펴건대, 支配集團에서 奴婢로 充當된 경우이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氏는 公奴婢에 관한 論文 “高麗時代 公奴婢의 性格”(歷史學報, 80, 1978, pp. 41~43)에서는 姓을 가진 公奴婢가 많은 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확신하였으나 뒤에 이 전해를 바꿔 公奴婢는 姓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p.84). 私奴婢의 경우도 姓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徐均·金昂의 例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姓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외 事例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외 李義政·金仁俊·金承俊 李公佐 등 몇 사례가 있지만 이들의 신분이 奴였는지 여쭙지는 애매하다고 한다. 한편, 金壽泰氏는 이 史料를 奴婢가 本質을 갖는 경우라고 제시하였는데(高麗本質制度의 成立, p.51) 濱中昇氏는 이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하고 있다. (“前揭論文,” p.98).

들의 本貫이 該地域의 姓氏와 불일치하는 事例가 많음에 대해 吉田光男氏는 邑司는 鄉吏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邑司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地理志의 姓氏條에 누락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³³⁾ 그러나 邑司구성의 기초적 조건에서 볼 때 士族과 吏族의 姓氏別 區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氏처럼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邑司는 吏職層이 기본단위이지만, 吏職層內에서의 分化에 따라 官人의 신분을 갖는 사람, 또는 沒落하여 良人이나 奴婢신분을 갖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李樹健氏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 볼 때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士族層이나 吏族層의 많은 사람의 本貫이 該지역의 성씨와 일치하지 않는 事例는,³⁴⁾ 邑司를 구성하는 성씨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地理志의 기록이 철저하게 되지 않는, 그 자체 많은 결함을 갖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

33) 吉田光男, “前掲論文,” p.432.

34) 前掲 註 26 參照. 高麗時代의 事例로서 吉田光男이 조사제시한 事例 이외에 더 추가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 표와 같다.

本 貫	姓 名	身分・職役	出 典
春 陽	金 怡		高麗史 108. 列傳 21. 金怡傳
白 川	權居義	副 令	高麗史 121. 列傳 34. 義權, 權居義傳
慰 珍	金巨貞	庶 人	國寶戶籍 5冊
多 仁	申 青	伐理驛吏	高麗史 124. 列傳 37. 申青傳
安 陰	潘 腆	散 員	高麗史 121. 列傳 34. 潘腆傳
義 興	曹 頤	驛 吏	高麗史 131. 列傳 44. 曹頤傳
守 城	曹希參	軍器少尹	高麗史 121. 列傳 34. 孝友, 曹希參傳
延 日	吳思忠	武 將	高麗史 120. 列傳 33. 吳思忠傳
寧遠鎮	吳思忠	武 將	高麗史 120. 列傳 33. 吳思忠傳
鎮 州	于 琬	譯語・郎將	高麗史 130. 列傳 43. 于琬傳
清 河	崔 奇	前 伍 尉	國寶戶籍
公 州	王兢讓	僧 侶	金石總覽上, 鳳岩寺靜眞圓悟塔碑
稷 山	金 瀾	宦 者	世宗實錄地理志 149. 稷山縣
永 州	邢壽也 先不花	士人・宦官	拙蒿千百, 2. 永州製曾銀所陞爲縣碑
貞 州	鄭 氏	河源郡君	光山金氏戶口單子

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鄉吏나 戶長등의 성씨가 앞의 <표 2>에서 보듯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邑司 구성원의 성씨가 地理志姓氏登載의 기본적인 단위라는 견해는 따라도 좋을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鄉吏나 戶長의 姓氏가 지리지 성씨조의 기재에 빠진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들이다.

- 海美戶長 金鍊(太宗實錄 卷 34. 17年 11月 戊午)
- 吉州記官 金河生(世宗 5, 元, 8. 癸未)
- 高山縣吏 石珍(世宗 10, 2. 10, 癸丑)
- 黃州站吏 閔千守(世宗 51, 13, 1. 癸酉)

한편 姓氏條에 亡姓으로 나온 성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또한 보인다.

- 報恩 船軍 孫於火(世宗 34. 8. 10. 己丑)
- 定山 宦官 林秀(世宗 20. 5. 6. 甲寅)
- 連山 生員 黃陸(世宗 42. 10. 12. 丙戌)
- 鐵原 戶長 金生(世宗 32. 8. 4. 己丑)

亡姓이 邑司를 구성하던 姓團으로서 어느 시점에선가 그 지역에서 도태된 성씨라고 하는데,³⁵⁾ 亡姓이 該地域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鄉吏·戶長등의 성씨가 該地域에 없는 경우는 邑司단위로의 성씨 파악이라는 기본 전제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朝鮮初의 예이기 때문에,³⁶⁾ 麗末의 변동기에 地方邑司의 구성에 커다란 변동이 있었고,³⁷⁾ 또한 지리지의 기재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성격문제에서 미루

35) 李樹健, “前揭書,” p.93.

36) 高麗時代의 경우 醴泉開心寺石塔記에 「棟梁 戶長 陪戎校慰 崔祐 母主 副棟 梁△△邦祐」라고 하여 戶長 林長富와 併記된 崔祐의 이름이 보인다. 林氏는 醴泉의 土姓으로 나오나 崔氏는 보이지 않는다. 단, 그가 戶長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견해(李基白, 高麗光軍考, 歷史學報, 27, 1965. p.6)도 있어 단언할 수는 없다.

37) 忠烈王때의 기록에 鄉·所·部曲의 人吏가 一戶도 없는 곳이 많다는 기록은 이런 사정을 말하여 주고 있다. (高麗史 卷 84 刑法志, 職制)

어 보면, 姓氏記錄이 邑司구성원의 성씨 기록이라는 전제를 크게 흔들만큼 적극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리지의 성씨기재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앞서의 언급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지의 撰成에 이용된 자료의 性格問題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Ⅳ. 姓氏條의 資料問題

世宗實錄地理志의 姓氏條作成에 이용된 資料問題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滲中昇氏의 論稿이다.³⁸⁾ 氏는 世宗實錄地理志에 이용된 資料는 古籍과 道關이며, 輿地勝覽에는 世宗實錄地理志, 周官六翼, 慶尙·全羅道觀風案이 이용되었고, 慶尙道地理志에는, 확실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世宗實錄地理志에 이용된 古籍과는 다른 별개의 자료가 이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서 古籍과 關의 時點이나 그 性格 등에 대하여 검토를 가하고 있다.

東國輿地勝覽 姓氏條가 上記한 諸資料를 토대로 하여 撰成되었음은 의심할 바 없다. 東國輿地勝覽 卷 3 漢城府 姓氏의 註에

姓氏 並依周官六翼·尹淮地理志·慶尙全羅兩道觀風案

이라 하여 그 典據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周官六翼은 麗末에 金社가 撰한 일종의 행정안내서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생각되며,³⁹⁾ 尹淮地理志란 世宗實錄地理志를 말하는 것이다.

38) 滲中昇, “前揭論文,” 한편, 李樹健氏도 前揭書에서 “姓氏關係資料의 演變”이라는 項을 설정하여 資料問題를 다루었고,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p.391에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39) 牧隱文藁 卷 9, 序 贈金敬淑秘書詩序「周官六翼 在位者之座右銘也 其不傳 至治之澤不降矣 其關於世道 豈不重哉…」 또 周官六翼의 著者 및 내용에 관해서는 花村美樹 “周官六翼と其の著者,” (京城帝大法學會論集, 12-3·4, 1941): 許興植, “金社의 選粹集·周官六翼과 그 價值,” (奎章閣, 4, 1981) 및 高麗社會史研究, (p.383~384) 參照.

그런데 濱中昇氏는 世宗實錄地理志의 姓氏條에 이용된 자료는 古籍과 道關이라고 파악하며 周官六翼은 이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世宗 14년에 이루어진 實錄地理志는 輿地勝覽처럼 무슨 자료에 의거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前掲史料 A①·②에서 보듯이 古籍과 今道關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고 나옴을 보아 古籍과 道關이 자료였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겠다. 그러나 周官六翼은 어떠한가? 世宗實錄地理志에는 周官六翼을 參考하였다는 부분이 다음처럼 나온다.

- C① 舊都開城留後司 文宗十六年壬寅 復陞爲知開城府事(金訚所撰周官六翼云 壬寅三月改號…) (卷 148, 開城留後司)
- ② 忠清道延豐縣 長延姓…(六翼云 長延古上毛縣) (卷 149)
- ③ 慶尙道 蔚山郡 唯六翼云 古稱火城郡 興麗府(卷 150)
- ④ 名道說 周官六翼云 道說入唐 傳得一行禪師地理之法而還 踏山自白頭山…(卷 151, 全羅道靈岩郡)

위 史料들을 보아 世宗實錄地理志가 周官六翼을 참고하였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다만, 이 史料들은 姓氏自體를 설명하는데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濱中昇氏는 이처럼 姓氏관계에 周官六翼이 참고되지 않고 있음을 가지고 世宗實錄地理志의 편찬자는 번잡을 피하여 古籍과 道關만에 의거하고 周官六翼은 姓氏條를 기록할 材料로서는 의식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世宗實錄地理志의 姓氏관계 정리에도 周官六翼이 참고되었다고 보고 싶다. 다음 資料를 검토하여 보자.

표 3) 大丘 壽城縣·解頤縣의 姓氏

地理志 地域	慶尙道地理志	實錄地理志	輿地勝覽	備 考
大丘壽城縣	土姓四, 賓· 羅·曹·粘	土姓四, 賓· 羅·曹·粘	(壽城)賓·羅· 曹·粘	三書同一
“ 解頤縣	土姓四, 白· 牟·韓·河	土姓五, 牟· 白·河·申·丁	(解頤)牟·白· 河·申·丁	韓一申, 二 書 丁氏추가

40) 濱中昇, “前掲論文,” p.82.

위의 <表 3>은 慶尙道 大丘의 屬縣, 壽城縣과 解顔縣의 姓氏에 관한 慶尙道地理志·世宗實錄地理志·世宗實錄地理志·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提示해 본 것이다. 壽城縣의 경우, 三書의 記載內容은 동일하다. 그런데 解顔縣의 경우, 慶尙道地理志에 白·牟·韓·河의 4姓으로 나옴에 비해, 實錄地理志와 輿地勝覽에는, 牟·白·河·申·丁의 5姓으로 나오고 있다. 慶尙道地理志의 韓氏가 안보인 대신 申氏와 丁氏가 새로이 나타난다. 輿地勝覽에는 壽城縣과 解顔縣의 姓氏에 대해 다음처럼 註記가 나온다.

D① 壽城姓氏 賁·羅·曹·粘(周官六翼 壽城古有三城 壽大部一名壤城 其姓賁 勾貝城 其姓羅 仍助伊姓 其姓曹粘)

② 解顔姓 牟·白·河·申·丁(六翼亦云 省火城牟 無價城申 佛坐城白河 鳴城丁)

大丘郡 壽城縣의 姓氏는 同一하므로 문제될게 없으나 解顔縣의 姓氏는 달라지는데, 이들 姓의 出資에 대해 周官六翼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世宗實錄地理志에 추가된 丁氏와 申氏는 周官六翼에 근거한 것이지 않은가고 여겨진다.⁴¹⁾ 따라서 世宗實錄地理志의 姓氏條에는 古籍, 道關이 이용되고, 周官六翼도 參考되었다고 생각한다.

世宗 7년에 이루어진 慶尙道地理志의 利用資料에 대해, 濱中昇氏는 확실한 언급은 않고 있으나, 世宗實錄地理志에 이용된 古籍과는 다른 어떤 자

41) 그러나 周官六翼은 姓氏 그 자체에 관해 그다지 상세한 내용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地理志에 周官六翼이 이용되는 예는, 解顔縣의 城姓이 설명되지만, 그 외는 모두 行政區劃의 演變이나 口傳 등에 관한 서술에서 참고되고 있다. 곧

○唐津縣姓氏條, 新法의 註 ○興海郡 古跡 彌秩夫城의 註 ○慶山郡 古跡 古浦城·金城·弓谷城의 註 ○京畿總記 古馬韓之域의 註 ○開城府 錢浦 ○驪州牧 古跡 登神莊의 註 등에 보이는 것처럼 모두 행정구획의 演變에 관한 서술이다.

지리지 외에 周官六翼이 참고되고 있는 예는, 文科合格者의 歸省事例(世宗實錄 卷 43, 11年 3월 丙寅), 給田에서의 敎官階 이용문제(世宗 51, 13. 1월 甲申) 外官品秩의 決定問題(世宗 51, 13. 1. 丁丑), 損家法實施의 事例調査(世宗 102, 25. 11. 癸丑) 등의 경우이다. 이로서 보전대 周官六翼은 行政案內書 같은 것이지만, 郡縣의 演變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간혹 姓氏관계 자료가 있어 이것이 地理志 姓氏條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료로서 撰成된 것이며 또한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한다. 慶尙道地理志에서도 참고한 資料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없다. 그러나 慶尙道地理志에 周官六翼이 참고가 안된 것은 확실하다. 앞서 살펴 본 大丘郡 解顔縣의 성씨 관계자료에서 이점은 확실히 들어난다고 보인다. 慶尙道地理志의 자료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世宗實錄地理志와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표 4>가 된다.

〈표 4〉 慶尙道 地理志와 世宗實錄地理志의 內容表記 비교표

地 域		慶尙道 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備 考
主 縣	任 內	姓 種	姓 氏	姓 種	姓 氏	
慶州府	本 府	土姓 6 天降姓 3 來姓 1	李·崔·鄭·孫 襄·薛 朴·昔·金 康	土姓 6 天降姓 3 來姓 1 賜姓 1 續姓 1	李·崔·鄭·孫 襄·薛 朴·昔·金 康 僕 楊(杞溪來, 時爲 鄉吏)	賜姓·續姓 新出
	安康縣	土姓 5	安·盧·金·黃·廉	土姓 5 唐來姓 2 續姓 3	安·盧·金·黃·廉 邵·邊 尹(松生來) 崔· 李(本府來 皆爲 鄉吏)	唐來姓·續 姓 新出
	竹長郡曲	部曲姓	葛	續姓 4	葛·金·李·宋	土姓→續姓· 성씨 추가
尙州牧	靑理縣	土姓 4	張·朴·黃·沈	縣姓 3 次姓 1	張·朴·黃 沈	土姓→土姓 + 次姓
	丹密縣	土姓 3	羅·孫·申	人吏姓 村落姓	羅 孫	土姓이 人吏 姓·村落姓으 로
星州牧	八莒縣	土姓 5	都·玄·任·田·卞	縣 姓 百姓姓	都·玄·任 田·卞	土姓이 土姓 과 百姓姓으 로
金山郡	黃金所	所姓 5	李·金·田·朱·文	所姓 3 續 姓	李·田·金 朱·文	土姓이 土姓 과 續姓으로

晉州牧	本 府	土姓 4 立州後姓	河·姜·鄭·蘇 柳·任·康	土姓 4 立州後姓 續 姓	河·姜·鄭·蘇 柳·任·康 金·朴	동일 表現 續姓 新出
昆南郡	昆明縣	土 姓 立縣後姓 來 姓	全·文·俞 玄·白 康·柳·趙	昆明姓 立縣後姓 來 姓	俞·全·文 玄·白 康·柳·趙	同一表現
	南海縣	土 姓	裴·金·陳·白·諸	村落姓 亡 姓	諸 裴·全·白·陳	土姓이 村落 姓+亡姓
	蘭浦縣	縣 姓	鄭·高·朴	縣 姓 村落姓	鄭·朴 高	土姓이 土姓 +村落姓
	平山縣	縣 姓	白·趙·裴	縣 姓 亡 姓	趙·裴·白 曹	亡姓新出
	亡多音鄉	鄉 姓	文	續 姓	文	土姓이 續姓 으로 바뀜
	巨濟縣	本 府	土姓 6 來 姓 村 姓	土姓 4 來 姓 續姓 2 村落姓 百姓姓	鄭·潘·朴·尹 羅 辛·李 朴·白 孫·曹	土姓이 土姓 +百姓姓 續姓新出 百姓姓과 村 落姓併記
	鵝州縣	縣 姓 村 姓	田·文·葛·曹 曹	鵝州姓	申·文·葛·曹	村姓이 實地 에서 탈락
機張縣		土 姓 來接姓	李·金·鄭 許·朴	土 姓 來 姓	李·金·鄭 許·朴	兩書 同一

〈표 4〉에서 보듯이, 慶尙道地理志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姓種이 世宗實錄地理志에 보이는 것은 次姓·續姓·賜姓·亡姓·亡來姓·人更姓·百姓姓 등이다. 이들 姓種은 慶尙道地理志의 土姓이 새롭게 구분되어 나오기도 하고 또 전혀 새로운 姓氏의 姓種으로 表出되기도 한다. 이외 土姓(部曲姓·縣姓·鄉姓·所姓·天降姓·立州後姓·立縣後姓), 來姓(來接姓·京來姓·投化姓), 村姓(外姓·村落姓·外村姓) 등의 용어는 같이 나오고 있

으나 그 기재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同一하지 않다. 姓種과 姓氏의 이런 차이 외에 慶尙道地理志에는 亡部曲등의 행정구획과 그의 성씨가 많이 나오나 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대부분 削除되고 있다는 차이점도 보인다.

이상을 보면, 慶尙道地理志 姓氏條는 世宗實錄地理志 姓氏條와는 다른 次元의 편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世宗實錄地理志의 이용자료와는 별개의 자료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實錄地理志에 보이는 續姓·亡姓 등의 姓種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 道關類의 이용은 안되었을 것이다. 古籍類의 경우도 實錄地理志가 이용한 古籍은 대체적으로 慶尙道地理志에서는 이용이 안된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人吏姓·百姓姓 등의 표현이 古籍에 기초한 것이라면, 實錄地理志는 이에 의거하여 姓種을 쓴 것이 되지만 慶尙道地理志는 이 점에서 古籍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世宗實錄地理志에 이용한 古籍類가 慶尙道地理志에서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경상도 晉州와 昆南縣의 경우 立州後姓과 立縣後姓이라는 독특한 표현의 姓種이 慶尙道地理志나 實錄地理志에 똑같이 나온다. 이는 兩書가 이 지역의 경우 同一한 자료에 근거를 두고 姓種을 表記한데서 연유된 바라고 생각된다.

한편 兩書의 姓氏條가 별개의 자료에 근거를 두었으리라는 事例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義昌의 土姓이 實錄地理志에서 土姓과 村姓으로 구분된 것, 固城縣의 경우 慶尙道地理志에는 「來接姓: 騰珠(唐)海南以來 吳」라 한 것을 實錄地理志에서는 「來姓: 登朱(唐來)吳(海州來)古籍一云 登朱崔海州來 吳唐來」라 하여 姓氏나 所自來處가 달리 기록된 것, 義城縣의 경우 慶尙道地理志에는 「外村姓 丁·蔣·康·魯·金」이라 하였는데 實錄地理志에는 「村姓: 丁·康·金·蔣·盧(今作魯)」라 하여 慶尙道地理志의 魯氏를 實錄地理志는 盧다 표기하면서 「今作魯」라고 주기하여 둔 예 등이다.

결국 慶尙道地理志는, 世宗實錄地理志와 별개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같은 資料를 이용하기도 하였다고 보인다. 곧 地域別로 統一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양한 자료(이른바 古籍이라고

총칭되는)가 混用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상을 綜合하여 보면, 慶尙道地理志는 世宗實錄地理志에 이용된 古籍 중의 일부와 또는 별개의 자료들이 이용되어 작성되었고, 世宗實錄地理志는 古籍이라는 諸文書와 道の 報告書인 道關, 그리고 周官六翼이 참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輿地勝覽은 實錄地理志와 周官六翼·慶尙·全羅 兩道の 觀風案이 더 추가되어 작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중 古籍은, 高麗時期부터 存在하였던 地方과 중앙의 행정자료 및 姓氏資料일 것이다.⁴²⁾ 中央에는 各邑別의 行政 및 氏族關係資料가 있었을 것이며 지방에서는 各 邑司別 吏案·壇案등과 같은 氏族關係 資料와 行政 關係資料가 있었을 것이다. 古籍은 지역별로 그 작성시기가 다른 여러 중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高麗初期의 것이 있는가 하면, 後期 이후의 事實이 기록된 古籍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⁴³⁾ 지역에 따라 기록 보존의 상태, 調査의 深化 정도, 中央權力의 침투시기 등등의 요소에 의하여 많은 多樣性을 지닌 것이 地理志에서는 이른바 古籍이라는 용어로 총칭되는 文書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濱中昇氏는 地理志에 이용된 古籍의 性格을 검토하면서, 武臣執權期 이후에 작성된, 즉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의 약 100년 사이에 이루어진 姓氏關係 자료일 것이라고 하였다.⁴⁴⁾ 과연 古籍의 작성시기를 이처럼 규정하는 것이 無理는 없는지 검토하여 보자. 아래의 자료들이 이 문제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것 둘이다.

- ① 木川土姓六 牛·馬·象·豚·場·沈·申·王(謠傳 高麗太祖開國 以木州人屢叛族之 賜其邑姓 皆以蕃獸 後改牛爲于 改象爲尙 改豚爲頓(東國輿地勝覽 卷16 木川縣)

世宗實錄地理志에도 木川縣의 姓은 牛·馬·象·豚·場·申의 舊名으로

42) 李衡健, “前揭書,” p.35.

43) 世宗實錄地理志에 “古文” “一本” “今報” “縣報” 등의 用例가 보이는 것이 이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다. 앞에 나왔던 慶尙道 固城縣의 경우 “古籍一云”이라는 表現도, 古籍이 單一種이 아님을 말하여 준다.

44) 濱中昇前揭論 “文” p.86.

나오고 있다. 이들 성은 뒤에 于·尙 등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木川을 本으로 한 于學儒등이 高麗史에 立傳되고 있다.⁴⁵⁾ 그런데 地理志의 姓氏는 이와 같은 改姓이전 단계의 상태인 牛·馬·象 등의 성씨로 기재되어 있다. 적어도 古籍이 13세기 후반에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초기의 事情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러한 서술은 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② 文化柳氏는 황해도 文化縣의 姓氏에 來姓으로 나오고 있다. 柳氏가 이 지역에 流入한 것은 그 始祖 車達때이며 車達은 太祖를 도와 功臣이 되었다고 한다.⁴⁶⁾ 高麗 太祖時의 移住인에 來姓으로 기록된 것이 世宗實錄 地理志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文化縣의 姓氏관계 古籍은 극히 初期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인다.

③ 永順太氏始祖集成 高麗時永順部曲村民 有姓太者 捕賊立功 陞部曲爲縣 遂爲土姓(增補文獻備考 卷 52 帝系考 13)

世宗實錄地理志 卷 150 尙州牧屬縣 永順縣에는 續姓一 太라하여 太氏가 續姓으로 나오고 있다. 이 太氏는 尙州의 북면 林下村에 거주하다가 어느 때인가 捕賊立功하여 그 村을 縣으로 승격되게 하였다. 이 太氏가 續姓으로 나온다면 古籍에의 기록이 없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尙州牧管內 永順縣의 古籍이 太氏集團이 成長하여 土姓으로 되기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④ 咸吉道 高原郡에는 「土姓四 韓(洪武三十一年戊寅戶口云 登州來)」라 나온다. 太祖 7년(1398)에 이동해 온 韓氏가 土姓으로 되고 있다. 이는 高原郡의 古籍에 이 시기 무렵 작성된 어떤 것이 있었지 않은가 한다.

이상 몇 예를 보건대 古籍은 지역별로 작성시기가 상이하하며, 한 지역에도 여러 단계의 것이 존속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古籍의 時期는 一律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古籍 또는 關으로 단

45) 高麗史, 卷 100, 列傳 13. 于學儒傳.

46) 高麗史 卷 99, 列傳 12. 柳公權傳「柳公權 字正平 儒州人 六世祖大丞車達 佐太祖爲功臣」.

순하게 소개되더라도, 실제 그 자료들은 매우 다양했을 것이며 지역에 따라 時期別로 종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통일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중앙에서 일관하여 파악한 것이 아니라 지방관아에 조사를 시켰을 것이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이 混用되었을 것이다. 이 점은 慶尙道地理志 姓氏條나 世宗實錄地理志 姓氏條, 輿地勝覽 姓氏條 모두 마찬가지이다. 일관된 體裁나 項目으로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으로 보인다.

地理志의 이해에는 一元的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대체로 邑司를 구성했던 집단의 姓氏가 동재된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리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나 姓種의 區分은 각기 상이한 개념들이 적용되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V. 맺 음 말

이상 지극히 개괄적이거나, 종래의 姓氏에 관한 제연구에서의 견해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검토를 시도해 보았다. 이는 地理志 姓氏條의 이해를 위해 제각기 상이한 견해들에 대한 綜合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스로의 문제의식의 부족, 分析力의 결여등에 의해 만족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말았다는 느낌이다. 부족한 대로나마 앞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삼고자 한다.

姓氏의 性格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중 邑司構成員의 성이라고 보는 것이 별무리가 없는 견해라고 여겨진다. 물론 邑司構成의 姓이라고 하여도, 그 構成員의 계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장도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하지만, 邑司構成은 吏職階層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계층내에서의 分化・派生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두었다.

다음으로 지리지의 자료는, 경상도 지리지의 경우, 世宗實錄地理志의 자

료와는 별개의 어떤 자료에 바탕을 두어 작성된 것이 많지만 일부 지역은 世宗實錄地理志와 같은 자료가 이용되기도 하였다고 본다. 世宗實錄地理志는 古籍으로 총칭되는 文書와, 道關, 그리고 周官六翼이 참고된 것이며 輿地勝覽은 世宗實錄地理志와 周官六翼, 그리고 慶尙·全羅 兩道の 觀風案 등이 이용된 것이다.

古籍의 내용은 자세하지는 않다. 다만, 古籍이 高麗武人執權 이후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의 100여년간의 時點에 작성된 것이라는 濱中昇氏의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古籍은 지역에 따라 작성의 시기가 다양하며, 또 한 지역내에도 여러 종의 古籍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古籍이라고 總稱하여도 실로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地理志의 姓氏條 기재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또 지역에 따라 姓種區分의 기준도 달랐다. 그러므로 이들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統一的 기준은 엄밀히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⁴⁷⁾ 姓氏의 分化發展과 소멸등의 과정이 지리지에는 뒤섞여 나오고 있으며 高麗初期부터의 상황과 朝鮮初期까지의 상황이 뒤섞여 있다고 보인다. 대체적으로는 高麗時代의 사정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기는 하나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이용한 자료나 조사의 과정, 郡縣의 歷史的 變遷 등등에서 야기된 현상일 것이다.

地理志의 姓氏條가 鮮初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鄉吏의 姓을 등재한 것이라거나, 또는 士族姓과 鄉吏姓으로 구분된다는 견해, 또는 古籍이나 關에 의하여 파악되었던 本貫의 集成이라는 견해는, 地理志 이용 자료의 성격에서 미루어 볼 때 정당함을 얻은 견해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하겠다.

47) 李樹健氏도 世宗實錄地理志의 姓氏條 기재양식이 각도·각읍에 따라 다소 相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 地理志 所載 姓氏條를 分析함에 있어 너무 기재형식에 천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前掲書, p.107).

그러나 地理志의 姓氏條가 특히 군현제도의 연구나 신분제도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는 실정임에 비추어 이 부분과의 종합적 연결을 갖지 못하고, 단편적 자료에만 의지하여 論旨을 이끌어 온 본고도 그 결론에 있어 별다른 실험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다. 또한 先學의 論旨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誤導한 점도 많을 것으로 自認한다. 叱正을 바란다.

※ 〈본 論文은 1984년도 文敎部學術研究 助成費의 支援에 의하여 연구되었음〉